

# 국악과 인기 웹툰 ‘조선왕조실록’의 만남

### 국립국악원, 작가 변지민씨 이야기 손님으로 초청 ‘다담’ 콘서트 새롭게 꾸며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의 대표 국악 브런치 콘서트 ‘다담(茶談)’이 새해 새로운 무대와 진행자로 첫 문을 연다. 23일 오전 11시 전통 한옥 형태의 소극장 풍류사랑방에서 MC 박정숙의 진행으로 첫 ‘다담’ 공연의 관객을 맞이한다. 조선시대 왕가와 신하들의 사건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웹툰 ‘조선왕조실록(talk)’의 작가 무적핑크(변지민)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온다. ‘무적핑크’는 2009년 ‘실질관객동향’로 네이버 웹툰에 데뷔, ‘고3 생존비기’ ‘경운기를 탄 왕자님’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소재를 쉽고 재미있는 웹툰으로 풀어내는 작가다. 2014년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조선왕조실록’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역사를 주변사람의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풀어내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얻어 TV 프로그램과 출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조선시대 왕가의

사건을 가족드라마로 풀어낸 소문의 이야기와 웹툰에 모두 담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어느새 8년차를 맞은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와 함께할 국악 연주는 주제에 맞춰 궁중 무용과 풍류음악, 관소리 등을 선보인다. 궁중의 공놀이를 우아한 춤으로 구성한 ‘포구락’, 선비들이 즐겼던 ‘천년난새’, ‘태평가’를 비롯해 조선시대 사치품이었던 비단의 종류를 늘어놓는 ‘홍보가 비단타령’이 울려 퍼진다. 국립국악원 정악단·민속악단·무용단의 무대로 꾸며진다. 국악 브런치 콘서트 ‘다담’은 2010년 3월 가수 유열이 진행을 맡으며 첫 선을 보였다. 2013년 정은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어오다 올해부터 세 번째 ‘다담지기’로 단아한 이미지의 박정숙이 캐스팅됐다.

기존에는 330석 규모의 공연장인 우편당에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130석 규모의 풍류사랑방으로 옮겨와 보다 정감있는 분위기로 꾸민다. ‘다담’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열린다. 공연 30분 전에는 공연장 로비에서 차와 다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30개월 이상 9세 이하 어린이 동반 관객을 위해서는 유아 국악 놀이방 ‘유아누리’를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 매달 이야기 손님과 관련된 상품 이벤트도 벌인다. 이번 ‘다담’의 공연 기대감과 후기를 작성한 관객을 추첨, ‘조선왕조실록’ 1권을 선물한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다.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gugak.go.kr),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 또는 전화(02-580-3300)로 예매할 수 있다. /안진수 기자



국립국악원 브런치 콘서트 ‘다담’



## 예능·드라마 전문 JTBC ‘2’ 나온다

3월 1일 개국 새 콘텐츠 제공

종합편성채널 JTBC의 새로운 채널인 JTBC 2가 다음달 1일 개국한다. JTBC2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채널로 ‘책 다룬 즐거움’을 목표로 20~39세 시청자를 겨냥한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한다. JTBC2는 경쟁력이 입증된 JTBC의 예능·드라마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외부 창작자와 연계한 실험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인원 JTBC플러스 엔터부문 대표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JTBC와 브랜드 연계성을 추구하며, 보다 젊고 도전적인 채널을 지향할 것”이라며 “젊은 세대의 디지털 놀이문화와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월1일 아침 7시부터 각 지역 케이블채널과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안진수 기자

## 도쿄서 내일 한일관광교류 페스티벌

100여명 방한 프로모션단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17,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문화관광대전-2016 한일관광교류 페스티벌’을 연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방문위원회, 한국어행정협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공연기

획사 등에서 100여명의 방한 프로모션단이 참가한다. 유관기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개막식과 도쿄 시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17일에는 도쿄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양국 관광업계 300여명이 참가하는 트레이드마트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개막식이 열린다. 한국방문위원회 홍보물 촬영 및 설명회를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인 송승환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예정이다. 18일에는 도쿄 메트로파크 홀에서 도쿄 시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난타’ 공연과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그룹 ‘조선심성’이 공연한다. 일본은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인바운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작년까지 방한 일본인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안진수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연구개발 기관 공모

410억 지정·67억 자유과제 투입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지원사업(이하 CT R&D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 7개 지정과제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오는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이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CT R&D 지원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 증액한 477억원으로 이 중 410억 원은 지정과제(신규 및 계속과제)에, 나머지 67억 원은 자유과제(신규)에 활용된다. 이번에 연구기관을 공모하는 2016년 신규 지정과제는 ▲문화콘텐츠(영화·음악 분야) 2개 과제 ▲문화예술(공연분야) 2개 과제 ▲서비스 R&D(전통문화, 문화창작

융합디자인 분야 3개 과제) 등 3개 분야 총 7개로, 여기에 57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지정과제에서는 이종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과제’를 처음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자유과제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의 아이디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새싹 K-CT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혁신성 성과창출 유도 및 창업 성공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지정과제 중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VRX(시각적인 특수효과)와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리우드 기반 렌더링 서비스 개발’(문화콘텐츠 분야), ▲혁신도약형 과제로 기획된 ‘Kinetic Art 효과 활용 동적영상부사다변형 서페이스 기술 개발’(문화예술 분야), ▲전통 짜맞춤 기술 활용한 공간구성 기술 개발’(서비스 R&D 분야) 등이다. /안진수 기자

이번 신규과제 수행에 선정된 기관들은 과제특성에 따라 최대 3년 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화 중심의 과제관리와 함께 문화기술(CT) 분야의 대형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콘텐츠 관련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3월 15일 오후 4시까지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d.kocca.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과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진수 기자

## 지역관광자원개발 현장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관광자원개발 신규 사업과 관련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15~25일 6개 시도, 1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컨설팅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의 각종 인허가 사항, 대지 확보 등 절차적 요건과 사업 완료 후 운영 계획, 주변 관광시설들과의 연계방안 등 내용적 요건 등을 점검적으로 확인한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들의 집행단계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집행단계, 사후단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사업 진단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각 지자체가 당초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매년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약 2300억원(320개 사업)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관광 자원화해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 한성준 예술상에 국수호씨 선정 한국춤의 언어로 공연미학 구축

춤자료를 연나채(관광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는 ‘제2회 한성준예술상’ 수상자로 ‘한국무용의 대명사’ 국수호(68)씨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을 15일 선정했다.



한성준예술상심사위원회(위원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는 국 감독에 대해 “한국춤의 언어로 순수 예술성과 대중성을 표방한 창작작업을 통해 한국적 더 나아가 동양적 춤 소재의 개발과 우리다운 국극춤의 양식화 및 공연미학을 구축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했다.

특히 “한성준 이후 조백원, 송병으로 이어지는 한국 남성무용예술가의 뚜렷한 존재감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업적을 높게 샅다”고 덧붙였다.

근대 전통무악의 거장 한성준(1874~1941)의 예술적 업적과 춤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전통춤의 보존 계승에 기여한 무용가, 한국춤의 예술미학적 발전에 기여한 창작무용가 중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대상으로 매년 1명을 시상한다. 한성준예술상은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임정혁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학선 성균관대 교수, 남정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재왕 경희대 교수, 박인자 전문무용수시원센터 이사장, 성기숙 연나채 관광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위원장으로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재우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태원 ‘공연과 리브’ 편집인, 유영대 고려대 교수, 정재수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시상한다. /안진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ilab.com/

(2016년 2월 16일)

**▷쥐띠**  
46년생: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운.  
80년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긴다.  
72년생: 적대감을 드러내지 마라.  
84년생: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것을 구하면 오히려 재앙이 따르니 주의하라.

**▷소띠**  
4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겸손함과 더불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61년생: 그동안 했던 연행에 대해 구설이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73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존심 상감만한 일이 생긴다.  
85년생: 위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협동해야 가능하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밤샘은 금물. 숨은 병명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인다.

**▷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니 나중에 편안해진다.  
63년생: 배우는 것에 관대하라. 반드시 되돌아온다.  
75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공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도움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반복적으로 운이 막히는 때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  
64년생: 문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8년생: 먼저 알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운.

**▷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약속했던 일이나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검토는 필수.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

**▷말띠**  
54년생: 굶은 일하고 희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않아야 한다.  
66년생: 울리우는 화기를 가리운다. 상항만 익히면 된다.  
78년생: 겸손함이 막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다.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양띠**  
55년생: 문서에 집착이 비추다.  
67년생: 편안해서 컨디션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기니 한편으로는 성가신 일들도 발생한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92년생: 소외기 계통이 약해지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닭띠**  
57년생: 티딘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구설도 함께 따르니 주의하라.  
69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말고 있는다면 풍족에 기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티딘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생각 없이 한 언행으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하라.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나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게끔 한다.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행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